

시온 주보

제2521호
2024년 9월 15일(나해)

연중 제24주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안니발레 카라치
(Annibale Carracci, 1560-1609)
1601-1602, 캔버스에 유채, 113 x 88cm
빈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빈



입당송 | 집회 36,21-22 참조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1독서 | 이사 50,5-9L

화답송 | 시편 116(114-115),1-2,3-4,5-6,8-9(◎ 9)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2독서 | 야고 2,14-18

복음환호송 | 갈라 6,14 참조

-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음 | 마르 8,27-35

영성체송 | 시편 36(35),8

-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최승정 베네딕도 신부 | 사제평생교육원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늘의 첫째 독서는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예언서의 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종을 모욕하지만, 그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며, 그의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종은 물러서지 않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르코는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님의 종이 겪는 고난은 바로 십자가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마르코의 신학을 오늘의 복음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8,27-35은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대목은 8,27-30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는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직역) 마르코 복음서는 1,1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8,29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15,39에서 백인대장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복음서의 한가운데인 8,29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대목은 8,31-35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가르치십니다. 다니엘서 7,14에 따르면 ‘사람의 아들’은 세상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 호칭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이라면 그 호칭들 아래서 위엄있게 권력을 휘두르는 임금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알아듣기 힘든) 부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이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등장하여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꾸짖음을 듣습니다. “가라! 내 뒤로! 사탄!”(직역) 여기서 사탄은 유혹자를 뜻합니다. 광야에서 만났던 사탄처럼 예수님을 유혹하지 말고, 예수님의 뒤로 가라는 뜻입니다. “내 뒤로!”라는 표현은 마르코복음 1,17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시몬과 안드레아를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 뒤로!”(직역) 그리고 8,34에도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내 뒤로 따라오려 한다면...”(직역)

첫째 대목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묻는다면, 둘째 대목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오늘의 복음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대답인데 새삼 당혹스럽습니다. 문득 어깨를 짚어보는데, 분명히 거기 있었던 십자가를 어디서 잃어버린 것일까요?



☞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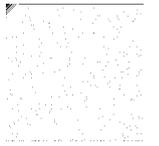
이 성화는 베드로 사도의 선교 활동과 순교 과정 등을 전하는 교회의 전승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가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앙에 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용서를 위하여



한수산 요한 크리스스토모 | 소설가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를 그리는 소설 《아, 최양업》의 연재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주교님이 탄식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오묘함이라니...”

최 신부님의 숭고한 생애를 널리 세상에 알리기 위해 소설이나 드라마는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주교님은 오래 전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소설가 하나는 또 소설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이것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오묘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주교님의 축복과,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고 주교관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드넓은 광장이 햇빛 속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빛의 화살 같은 말이 제 가슴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것이었나. 주님의 뜻이었나. 훗날 언젠가는 순교자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주제도 모르고 나뉘, 감도 안 되는 나를 염려하시고, 주님께 서는 내게 그 고문을 겪게 하신 것이었던가.

1981년 5월, 세칭 ‘한수산 필화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국군 보안사에 압송되어 고문을 받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두 눈이 가려진 채 흑심한 구타 속에서 저는 보안사 지하 고문실로 끌려갔고 물고문과 전기 고문으로 이어지는 가혹 행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와서, 주교관 앞의 햇빛 속에 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고문은 나를 위해 마련하신 주님의 담금질이었던, 통곡의 깨달음!

레이저 같은 한 줄기의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는 캄캄한 지하 고문실, 손발과 가슴팍에 22개의 전선을 연결

한 후 전기가 더 잘 통하도록 온몸에 물을 부어댄 후 살을 태우던 전기 고문도, 철제 의자에 묶인 채 기절해 쓰러져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 피부는 물로 흥건하게 젖어서 시멘트 바닥에 걸레처럼 널브러져 있던 그것도 주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취조실의 의자에 묶인 채 앉아서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고 바라보던 그 기나긴 밤 그리고 찾아온 새벽에 스며드는 밝음이 이상스레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는 걸, 그 빛은 한없는 무게로 내 몸을 감쌌다는 걸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겪지 않고서.

몸을 일으켜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교구청 마당을 걸어 나오며,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고문의 처절한 기억도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빛의 화살 같은 주님의 말씀이 또 제 가슴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제 알겠니. 다 용서하여라. 증오의 사막을 건너가거라. 그리고 씨라, 네가 만난 그 새벽의 푸른빛을.”

한
커
교
리

올바른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도덕의 근본 내용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개별법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을 직면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는
인간 존엄과 사랑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는 근본 의무라는 점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570항)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공평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마르 12,44)



이명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앞에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원로들이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마르 11,28)라고 따집니다. 아마도 전날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과 환전하는 이들의 자리를 둘러엮으셨던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 11,15-19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들은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던 군중들이 두려워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굳이 자신의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할 필요가 없음을 피력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마르 12,1-9)를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그 포도밭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고발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러한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데나리온에 그려진 초상에 빗대어 카이사르의 것, 곧 황제에게 바치는 것과 하느님의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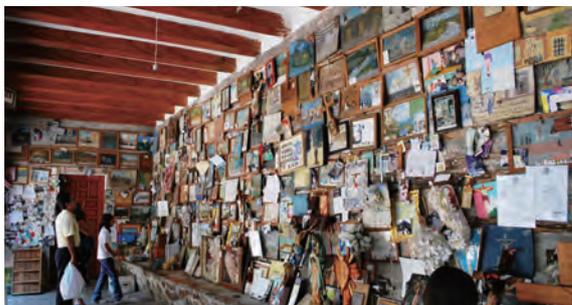
예수님께 이번에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찾아와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질책하시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갖은 애를 쓰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신 예수님의 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왁자지껄한 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법한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렘톤 두 닢, 곧 콰드란스 한 닢을 헌금함에 넣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당시 1콰드란스가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64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점을 생각할 때, 과부는 정말 작은 액수를 봉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봉헌한 콰드란스 한 닢이 부자들이 봉헌한 많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고. 겉으로 보기에, 부자들이 낸 것이 당연히 더 많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겉모습이 아닌 봉헌하는 이의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부유한 가운데 얼마를 하느님께 봉헌한 것이 아니라, 비록 콰드란스 한 닢이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놓았기에 그녀의 봉헌이 더욱 값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을.

그리스도인의 조건 (은총론)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멕시코 차마 성지의 엑스보토 |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Chalma, Malinalco' 항목

외국 성지나 성당을 방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낯선 풍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엑스보토'(Ex-voto)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벽면 가득, 간단하게 적은 문구와 함께 은색으로된 금속 패치 등을 만들어 걸어둡니다. 성모님의 전구로 재난과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등 각각의 '엑스보토'에는 교우들의 애절한 신앙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은총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왜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고통만을 주시는가?' 하고 원망의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야지, 종교적 신비에 기대어 은총을 청하는 건 미개한 행동이라며 꾸짖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은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가장 잘못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은총은 무엇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습성'(habitus)이라는 개념을 통해 은총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습성이란 말은 익숙해진 성향이나 몸에 밴 습관을 말하는데, 어떤 행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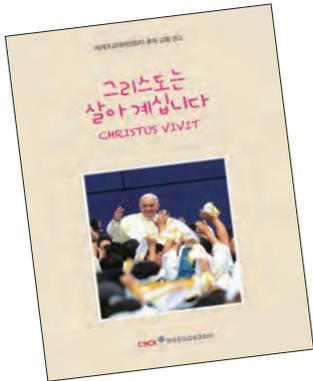
반복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날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성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습성이 노력과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조건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성인은,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습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습성은 마치 인간이 그리운 고향을 본능적으로 찾듯 본성적인 원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최종 목적인 참행복을 향해 응답하고 나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습성인 것입니다. 이렇듯 은총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기 이전에 인간이 갖고 태어난 선형적 조건입니다. 이 원리 덕분에 참행복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강화시켜 실제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은 언제나 우리 삶에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신앙인들은 은총을 청하고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지나 성당에 가면 기도 지향을 적어놓는 책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 뿐만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 안에서도 하느님께 매달리는 신앙인의 견잡을 수 없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capax gratiae)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미리 심어놓은 경이로운 습성 때문이 아닐까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48)



젊은이가 세상의 미래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젊은이는 지금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여러 책임을 맡기 시작하고,

어른들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성장에 한몫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3장의 제목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최유진 스텔라(길음동성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영원 속 순간들인 ‘지금’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작고 미천한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지금’이라니 놀랍기도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분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거나 모호한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제가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 그분의 뜻이 이곳에 남게 하는 것,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금’을 맡기시며 제게 바라신 게 아닐까 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오늘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 속 한 순간이길, 제가 사는 일분일초가 그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길, 두려움 없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사는 것이길 바라며 성령께 의탁합니다.



서정호 미카엘(잠원동성당)

“청년은 미래이자 현실”이라는 문구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청년들이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사회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갈 ‘세상’에는 전쟁, 저출산, 세대 간 갈등, 자극적인 디지털 요소 등 잔혹한 현실적 문제들이 놓여있습니다.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잔혹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잠시 주저앉을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차게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청년 사도로서 주변 친구, 가족, 교회, 더 나아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느님의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위대한 것을 향하여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창조주이신 하느님 뜻에 맞갖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성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107항)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순교는 조선시대나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직도 교회 가순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느 본당을 찾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없는 평일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매님 한 분이 남녀 화장실 전체를 정말 정성껏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부탁드리려고 고용한 분이신가 싶어서, 보수를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 주임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청소를 위해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본당 교우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하고 싶다면 오래전부터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매번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그토록 정성을 다하신다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103위 한국 순교 성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하기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순교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순교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신앙의 마음가짐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이후, 목숨을 내어놓는 방식의 순교가 흔하지 않게 되자,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은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순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가 그것입니다. 적색 순교는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교황님은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순교를 더하신 것입니다. 이는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순교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별의 결과입니다.



예로니모 성인께서도 이에 대해 설명하신 바 있는데, 백색 순교는 “엄격한 고행을 통해 순교의 정신을 따르려고 했던 사막의 은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속을 등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와 고통을 순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청빈, 정결, 순명’을 서원하고, 세속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살기 위해 애쓰는 수도자들이 백색 순교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녹색 순교가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녹색 순교에 대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등지는 것은 아니지만, 참회의 의미를 담은 노동이나 단식 등을 통해 욕망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녹색 순교의 개념은 의미심장합니다. 불의한 것은 견뎌도 불편한 것은 견디지 못하고, 많은 것을 배려가 아니라 민원으로 해결하려는 세속적인 흐름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이러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역류의 삶’을 살지는 호소가 ‘녹색 순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더러운 화장실에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나타나 정성껏 화장실 청소를 하던 교우분을 떠올리며, 이 시대의 순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더 많은 순교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사진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본문에 인용된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9월 16일(월)~18일(수)은 '추석 연휴'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9월 17일(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도록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위령기도'를 바칩시다.

9월 22일(주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3년 9월 19일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37세)
- 1950년 9월 17일 이재현 요셉 신부(41세)
- 1950년 9월 17일 정진구 마티아 신부(30세)
- 1950년 9월 17일 백남창 아가페도 신부(30세)
- 1980년 9월 20일 이문근 요한 신부(62세)
- 2001년 9월 18일 임충신 마티아 신부(94세)
- 2002년 9월 22일 박고빈 시메온 신부(67세)
- 2003년 9월 18일 임세빈 요셉 신부(90세)

알림 접수: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교구청 알림

제2회 그린아트페스티벌

소방관, 예술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명문화와 환경캠페인 나눔의 장 / 회비 없음
 예코가방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선착순 마감
 때, 곳: 9월21일(토) 13시~20시, 청년문화공간 JU 1층 카페(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주최: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큰사랑봉사회 / 후원: 서울시
 문의: 02)727-2081 / 신청 문의: 카카오톡 ID '그린아트축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직업연주자로 구성된 한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때, 곳: 10월7일(월) 19시~21시, 명동대성당
 내용: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공연, 성악가 및 가톨릭합창단 협연 / 참석: 서울시민 누구나

생명위원회

1) 2024년 청년 생명교육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 주제: 나 자신의 소중함 알기, 그리고 삶 안에서 유연하게 살아가기
 프로그램: 젠더, 비폭력대화 방법,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상호 관계, 인간의 존엄성 등
 때: 10월8일 · 15일 · 22일 · 29일 매주(화) 총 4주
 곳: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회비: 강의당 1만원, 총 4만원(전 과정 수강 시, 중복수강 가능) /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2) 파파의 생명교실

강의: 생명의 복음편(하반기)
 때: 10월10일~31일 매주(목) 19시~20시30분(4주간)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누구나
 내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회비: 1만원(생명의 복음 교재 개별 준비)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상설교해소 휴무 안내

때: 9월16일(월)~18일(수) / 추석 연휴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사무실

명동대성당 중국어 미사 안내(이주사목위원회)

때: 매일 첫째 · 둘째 · 셋째(주일) 오전 9시
 곳: 명동대성당 코스트홀(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74-1784

환경사목위원회

1) 제66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9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 제48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늘땅물벗 소개, 수료미사 및 수료식
 대상: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할 사람
 때, 곳: 9월24일~10월29일 매주(화)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총 6회) / 회비: 1인당 3만원(교재비 포함)
 신청방법: 구글 링크(<https://forms.gle/FGcGCZ3K1NwS81P6>)
 신청 /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24년 가을학기 공개대학

때, 곳: 9월25일~11월27일 매주(수) 19시~20시20분(8회차),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A104
 문의: 010-6764-7004 천강우 / 회비: 9만원(국민은행 444402-04-171823 천강우(교회사동인회))

9월25일(남소과)	연보와 사진으로 보는 민족화해위원회 30년	11월1일(이민석)	연론 보도로 본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
10월2일(황우 명교)	민족화해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과정	11월11일(박사)	DMZ를 건너 "전쟁과 문화유산 흔적 보기"
10월16일(이민석)	민족화해위원회의 사업 (1): 교육 · 연구 · 기도	11월19일(김연수 신부)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첫걸음, 북한 이해하기
10월23일(김기훈)	민족화해위원회의 사업 (2): 나눔 · 더불어 함께	11월20일(정수용 신부)	민화위 30년을 넘어 희망의 길을 가다
10월30일(송린희)	자료로 보는 민족화해위원회 "북한에서 온 한 장의 편지"	11월27일(조한권 신부)	종강 미사 (연구소 4층)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바오로딸 문화콘서트 <치유와 희망>전: 9월20일(금)~23일(월), 전관

'슬픔 속 희망찾기' 9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때, 곳: 9월21일 매일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하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기도학교, 뮤지컬, 바이올린, 해금, 이태리어 배우기, 현대미술, 집단상담, 우울과 불안 강좌 외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4/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문화팀

한국화와 그리스도교 미술	9월23일~10월28일(월) 19시30분~21시
영화로 마음 돌보기	9월24일~11월5일(화) 15시~16시30분
그림책으로 마음 읽기	9월24일~10월29일(화) 15시~16시30분
성애상담에 대해 배우는 통기타 성가 연주	9월25일~11월6일(수) 19시~21시
아크릴 성탄 성화 그리기	9월25일~10월30일(수) 15시~17시
캘리그래피 성탄 카드 만들기(심화반)	9월25일~10월30일(수) 19시~21시
한국교회사연구소 공개대학	9월25일~11월20일(수) 19시~21시
내가 만든 칼럼바로 성가 연주	9월26일~10월31일(목) 19시~21시
우쿨렐레 성가 연주	9월26일~10월31일(목) 19시~21시
태블릿으로 성탄 카드 만들기	10월2일~11월6일(수) 15시~17시
아이패드로 성탄 이모티콘 만들기	10월2일~11월6일(수) 19시~21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고통의 성모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때, 곳: 9월23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회비 없음, 미사 있음, 강의, 묵상 / 010-2724-4819

10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0월24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ICPE 두근두근 성가정을 위한 1일 피정-인격
때, 곳: 9월29일(일) 10시~17시, ICPE 선교회 센터(합정동)
내용: 강의, 나눔 (선착순 15명) / 문의: 010-5646-6594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때: 9월21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강사: 두현자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성모 승천 수도회 도보 성지순례
때, 곳: 10월19일(토), 배론·묘재·용소막성지(원주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사전 접수 필수 / 문의: 010-3080-9104

"딸아, 용기를 내어라." 젊은이 피정
대상: 2030 미혼 여성 / 회비: 3만원
때, 곳: 10월4일(금)~6일(일), 스승예수피정의집(여주)
문의: 010-9816-007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음악 피정
주제: 위로-사랑을 만나다 / 진행: 최준익
때: 10월5일(토) 16시 / 회비: 1만원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 B3
문의(접수): 070-4911-2333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9월27일(금)~10월5일(토), 11월1일(금)~9일(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10월11일(금)~13일(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3차	11월15일(금)~23일(토)	문의: (061)373-3001,
제12차	12월27일(금)~2025년 1월4일(토)	010-3540-9001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9월21일~22일, 11월29일~30일
목포성지와 12사도길	11월1일~2일
홍성남 신부와 제주교구	12월16일~19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운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0월4일~6일, 11월8일~10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11월23일~24일
단체 1일 피정(위탁)	대관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10월28일~30일·11월9일~11일·11월14일
~16일·12월7일~9일·12월13일~15일·2025년 1월17일
~19일·1월23일~25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3일~6
일·11월18일~21일·11월24일~27일·12월1일~4일·3월1
일~4일·3월9일~12일, 연말연시 12월30일~1월2일(한라산
·해님이·해돋이)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0월14일~16일·10월23일~25일·11월1일~3일
·11월7일~9일·11월11일~13일·11월21일~23일·12
월1일~3일·12월6일~8일, 추자도 포함 10월27일
~30일·11월16일~19일·11월25일~28일, 연말연시
12월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해님이·해돋이) / 문
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곳: 왜관 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회비: 9만원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계)왜관성베
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 문의: 010-6791-
0071 (문자) 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1차	9월27일(금) 15시~28일(토) 13시	승효상 건축가
2차	11월8일(금) 15시~9일(토) 13시	공지영 작가
3차	11월15일(토) 15시~16일(일) 13시	김탁환 작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
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투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예수교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0월4일 10시~15시30분
다네이 영성수련(대침목)	10월25일(금)~27일(일)
단식 피정	11월25일(월)~29일(금)
대침목 피정(요한목사목)	12월11일(수)~14일(토)
수요개빙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노베나 기도 신청	11월2일(토)~10일(일)까지 9일 동안 미사·위령기도 봉헌해드립니다
단체 피정(자제·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미시반주자·예비반주자 교육 / 문의: 010-3203-8183
주최: 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천호동성당 내)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
카페마스터자격증반 / 문의: 02727-2472

벨칸토 성악 교실(국악성기연구소)
성가·가곡, 초보자 환영 / 010-2252-2974 강신옥
때, 곳: (금) 10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분 거리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주제: 희망의 순례자들 /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때, 곳: 9월23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서강대학
교 이나시오 소강당 / 문의: 02705-4711

명동 성서사십주간 신약 모집
강사: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수녀 / 회비: 3만원
때: 10월8일부터 매주(화) 10시~12시(15주간)
문의: 010-2337-4547 (문자) 명동성당 가톨릭성서모임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서울대교구 39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9월29일~10월27일 매주(일) 13시30분
~18시30분(5주간), 석촌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예수살이공동체 배동제자교육
갈릴레아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적 인생
관을 찾아 떠나는 3일의 여정 / 문의: 023144-2144
대상: 20세 이상 천주교 신자 / 회비: 15만원
때, 곳: 10월3일(목)~5일(토), 성령선교수녀회(종로구)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보자기아트(BOJAGI ART) 강좌
한국의 전통 포장기법 보자기아트 수강생 모집
때, 곳: 10월7일~12월23일 매주(월) 13시~16시(12
주 과정),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강의실
회비: 40만원(재료비 별도)
과정 수료 후 보자기아트 2급 자격 취득 가능
문의: 02705-8718(<https://sccc.sogang.ac.kr>)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5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월30일(월)~10월10일(목)-전형일 10
월19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
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모집

제11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활동기간: 10월24일~27일 / 사전모임: 10월10일·17일
모집기간: 10월10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제인협회

성 김대건 성가단 하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 010-2272-0180
 때, 곳: 매주(수) 19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명동대성당 가톨릭학당 신입단원 모집

대상: 남녀 가톨릭 신자(1979년 이후 출생)
 오디션: 9월28일(토) 14시
 지원서: 명동대성당 홈페이지(PC버전) 또는 www.catholic-choir.or.kr 참조 / 문의: 010-3211-5195 (문자)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9월19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9월24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9월19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9월30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살레시오회 미사·피정 / 문의: 02)828-3522

- 1) 살레시오와 꿈 미사
 때, 곳: 매주(월) 11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
- 2) 반장 구역장 레지오 단원 1일 피정
 때, 곳: 수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교육관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자연 피정

때: 9월23일(월) 8시 명동 출발·19시 서울 도착
 곳: 강릉 정동진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회비: 5만원(해파랑길 입장료 포함)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김대건 신부님과 새남터의 순교자들을 위한 현양미사

때, 곳: 9월21일(토),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10인 이상의 단체는 꼭 사전 전화접수 요함
 문의: 070-8672-0327 새남터 성지안내소

14시 특강	원종현 신부
15시 현양미사	염수정 추기경과 사제단
16시30분 순교자 현양 음악회	소프라노 강혜정

안내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컷희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가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roller자비의수녀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6355-9782 박 레지나(상담자)

사랑골 모임(개봉동성당)

대상: 사별을 경험한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하는 분들 / 9월15일(일)까지 접수
 때: 9월27일~11월15일 매주(금) 14시(8주)
 곳: 개봉동성당(구로구 개봉로 18길 11) 교육관
 회비 없음 / 문의: 010-6735-2325 이수민 수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지곶 성지, 청양 다라곶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4년 동교동 문화축제

청년문화공간JU에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4 동교동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콘서트로 진행되는 'Autumn Melody', 청년작가들이 준비한 '청년작가 플리마켓',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338-7832
 때, 곳: 9월28일(토) 10시~19시, 청년문화공간JU

익산 성글라리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및 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료 지원)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주역의 명상과 심리 치유 (인문학 강의)	9월25일~12월4일 매주(수) 14시~16시(10회기) / 강사: 박연규
마음챙김과 영적돌봄 피정	9월28일(토) 15시~29일(일) 15시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통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9월24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떼제노래 기도모임·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일 세번(토) 9월21일·10월19일·11월16일 16시~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군중후원회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업무: 회원등록 및 정보확인 / 문의: 02)776-0457
 근무기간: 10월21일~31일(공휴일 제외)
 홈페이지(www.gunjong.com)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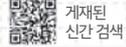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l886@catholicbook.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지원	인사총무, 재무회계
디자인	웹·콘텐츠, 편집
판매	매장 운영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예수의 가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9월22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냉담 중입니다

누구나 지음
바오로딸 | 264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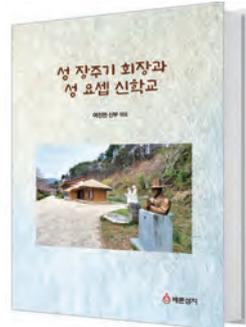
냉담 중인 주인공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내용. 신앙생활을 통해 느꼈던 그리움, 고민, 기쁨과 어려움을 다시 돌아보며 지금의 나는 어디쯤 서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앙 체험과 갈등, 어려움, 기쁨과 보람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신간
존재 영성의 시작

양정식 지음
돈보스코미디어 | 364쪽 | 2만원
문의: 02)828-3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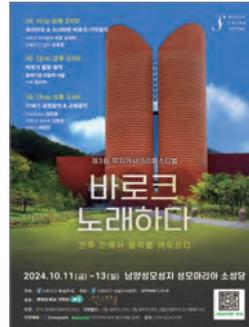
나 자신이 되고 싶은 소망과 자기소외에서 비롯한 자기 비하 사이에서 현대인은 심각한 정신 위기에 처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총 안에서 하느님과 나의 일치를 사는 존재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느님의 은총만이 나를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재케 하며, 그로 인해 존재 불안도, 자기소외도 극복됨을 존재 영성 개념을 통해 설명해 나간다.



신간
성장주기 회장과 성 요셉 신학교

여진천 역음
기쁜소식 | 172쪽 | 9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평신도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교회가 부여한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되는 장주기(요셉) 성인의 일생을 다뤘다. 또한, 성인의 봉헌으로 세워진 배론의 성 요셉 신학교의 설립 과정과 그의, 신학교 교수와 신학생들이 이야기를 함께 엮었다.



공연
2024 무지카사크라페스티벌

매: 10월 11일(금)~13일(주일) / (금) 14시, (토·주일) 15시
장소: 남양성모성지 성모마리아 소성당
입장권: 전석 3만원(좌석 비자정) / 예매: 인터파크, 네이버예약(무지카사크라페스티벌 검색, 큐알링크)
문의: 010-5229-1579 콘체르토안티코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3명 10% 할인

무지카사크라페스티벌은 바로크 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발전했던 종교음악을 중심으로 그 시대에 시도되었던 새로운 장르들을 소개하고, 원전 악기와 바로크 발성을 사용하는 성악가들이 모여 그 시대의 음악을 재현한다. 조경가 정영선 교수가 계획한 자연 공간에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성당과 조형예술가 줄리아노 반지의 성화로 채운 남양성모성지에서 그 뜻을 함께한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공연 시간: 12월 1일까지 (화·목·금) 20시, (수) 16시·20시, (토~공휴일) 15시·18시, (주일) 15시
입장권: 전석 6만 6천원
곳: 에스24스테이지 3관 / 문의: 02)6925-0419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25% 할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쉽고' 재미있게 재해석한 코미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장의 허름한 분장실에서 주인공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의 언더스터디(대역 배우) 에스터와 벨은 언제 무대에서 연기할 수 있을지 모른 채, 한없이 기다리지만 한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두 배우는 예술, 인생, 연극 그리고 그 안의 위태로운 존재에 대한 질문과 씨름한다.



도슨트
명동대성당 도슨트 프로그램 하반기 정기 일정

매: 9월 21일(토)~11월 23일(토) / (수) 14시~(토) 10시 40분 · (토) 16시 30분
신청방법: 도슨트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직접 접속 또는 큐알코드 이용하여 접속 후 신청
준비물: 송신기에 연결할 수 있는 3.5mm 유선이어폰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명동대성당은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가톨릭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전이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전례, 성미술,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복음적·예술적 메시지를 들으며 명동대성당을 새롭게 만나보길 바란다.

◎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 상 : 남녀 가톨릭 신자(1979년 이후 출생자)
- 오디션 : 9월 28일(토) 14:00 / 명동성당 문화관 3층
- 지원방법 : 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단체모집 게시판 공지 참조

또는 QR코드  (가톨릭합창단 홈페이지) 스캔 후

catholicchoir@naver.com으로 교적증명서·지원서 전송

- 활동 : 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및 대축일 미사
- 연 습 : ☎ 15시~17시, ☎ 11시~12시 (☎19:30~21:30)
- 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동가톨릭합창단 검색

◎ 가톨릭성서모임 '성서 40주간-신약' 수강생 모집

- 강의기간 : 10월 8일부터 2025년 1월 말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강의장소 : 명동 교구청본관 401호
- 강 사 :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님
- 수 강 료 : 30,000원
- 문 의 : ☎ 010-2337-4547 (*문자 요망)

◎ 3545+ 가을특강 「하느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 신앙의 의미와 목적 -
- 강 의 :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
- 일 시 : 10월 12일(토) 16:00 / 범우관 701호
- 대 상 : 79년생~91년생 청년신자
- 신청방법 : 구글 폼 신청 (QR코드 참조) 
- ※선착순 신청 마감
- 문 의 : @mdsd3545 DM으로 문의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 공통사항 : 세례 받은 남녀 교우 (교적 본당 무관)
-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9279-2381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작은 연주회

- 「주님과 음악 사이에」
-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일 / 오후 3시 30분
- 장 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7월 29일 ~ 9월 8일 : 270,000원)
누계 : 5,048,491,813원

심 중 헌 : 200,000원 | 익 명 : 7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

(교무금을 은행에서 송금 또는 자동이체하실 경우)

현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교무금 (감사헌금·기타헌금) 입금액이 다수 있습니다. 교무금 (감사헌금·기타헌금)을 은행을 통해 납부하신 적이 있거나 매월 자동이체 중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내방 가능하신 분들은 납부하신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인의 성명과 더불어 생년월일(6자리)까지 기재**하여 송금(자동이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 또는 교무금 통장 앞면에 있는 **신자 개인번호를** 기재해 주셔도 납부자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말일은 송금(자동이체)을 삼가해 주세요!**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오는 데 주말이 켜 있을 경우 약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7월 교무금을 31일에 송금(자동이체)하실 경우 8월분 교무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헌금을 포함하여, **성당 사무실에서 책정하신 교무금 납입금액과 송금(이체)액이 다른 경우** 필히 **성당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아미쿠스 주일학교 신입교사 모집

-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 모집기한 : 10월 6일(주일)까지
- 문 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평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부 주 임 진솔기(토마스)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보좌 김영우(스테파노) 신부
보좌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43	봉헌 : 511, 215, 332	성체 : 178, 157, 498	파견 : 285
-------	---------	--------------------	--------------------	----------

仲秋佳節

추석을 맞아 교우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보름달 같이 풍성하길 기도드립니다.
- 본당 사제단, 수도자, 사목협의회 일동 -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9월 17일(화) 「추석」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추석 합동 위령 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들은 9월 15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추석 당일 합동 위령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성당 들머리 차량출입로 공사로 인한 차량 입·출차 불가 안내

9월 23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성당 들머리 차량출입로 바닥보수공사 관계로 차량 입·출차가 전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천 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다른 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Ⅳ - 이신애 피아노 리사이틀 일정 변경 안내

※들머리 바닥공사 관계로 이신애 피아노 리사이틀 일정이 12월 초로 연기 될 예정입니다.

·문의 : 주관사 목프로덕션 ☎ 338-3816

● 명동 1898광장 수유실 이용 안내

·위 치 : 명동 1898 광장 /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

·이용시간 : 오전 8시 ~ 저녁 10시

·이용방법 : 1898 광장 안내데스크에 이용신청 후 직접 정리정돈 및 퇴실통보

● 추석 연휴 기간 고해성사 및 본당 휴무

9월 16일(월)~9월 18일(수)은 상설 고해성사가 없고 본당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9월 19일(목)부터 상설고해소 재개 및 본당 사무실 정상 근무 합니다.

※연휴 기간 미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봉헌됩니다.

● 2024년 명동보름장 추석연휴로 인해 휴장

매월 첫째·셋째주에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에서 진행하는 명동보름장이 추석연휴로 인해 9월 셋째주는 휴장합니다.

● 9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2,865,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9/2-9/8).....17,132,200
 - 연중 제 23 주일 헌금.....38,786,703
 - 감사헌금 (9/2-9/8).....1,134,000
- 김 라파엘 / 김 바오로 / 도 로사 / 박 안젤라 / 손 미카엘라
안 라파엘라 / 이 가브리엘라 / 임 사무엘 / 전 요셉
지 안젤라 / 천 테클라 / 홍 마리아 / 황 아네스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미사)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평일미사	월	07:00, 18:00	고해성사 (Confession)				
		화-금	07:00, 18:00, 19:00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성지미사	토	07: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월-토	10: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un.	08:30 - 08:50				
			Fri.	16:00 - 18:00	Sat.	15:00 - 17:00		

【 감사의 3·3·3 】 하루 세 번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받는 존재가 되며,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직장이나 소속된 공동체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